

반가운 이웃, 남구 새마을금고



◆문현1동새마을금고
자산 : 961억원
대출 : 677억원
임직원 : 21명
(지점 1개소)

업계가 인정하는 ‘폴뿌리 금융의 명장’

■문현1동새마을금고 이철형 이사장

문현1동새마을금고는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탄복하는 새마을금고의 ‘롤모델’이다. 재무지표를 들여다보면 허를 때루를 정도다.

우선 예대비율이 80%를 육박한다. 여기에 자산건전성 척도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01%에 불과해 전부 알짜 대출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생명공제 목표액 142%를 넘겨 남·수영구 21개 금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흑자를 놓친 적이 없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9억6000만원. 내부적립금으로 무려 85억

원이 쌓였다. 문현1동의 낙후된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성적표다.

금고의 기적은 이철형 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게 새마을금고 업계의 한결같은 평가다. 이 이사장의 옛 행보는 흡사 영화 ‘명량’을 떠올리게 한다. “돈 장사는 관심 없다”는 그를 금고 조합원과 임원들이 삼고초려 끝에 설득, 투포 앞이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취임하던 그 해 17억3000만원에 불과했던 금고 자산은 올 10월 현재 961억원으로 55배로 불어났다. 이 이사장이 털어놓는 비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바로 신뢰 구축이었다. “세상 모든

금융기관이 망해도 제가 있는 문현1동 금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사장 재임 전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몸에 익힌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이사장과 주민간의 끈끈한 신뢰가 쌓이면서 서서히 동짓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몇 해 전에는 금고의 위세에 놀라 시중은행이 점포를 문현1동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금고의 성장에 지역민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기에 이윤의 주된 환원에도 가장 열정적이다. 크고 작은 관내 행사에 늘 금고의 뒷장을 풀었다. 지난 폭우로 길이 유실된 마을에 도로를 내주는가 하면 최근 문일 경로잔치에 300만원 가까운 성품을 쾌척하기도 했다. “근래 저만 찾아오면 지역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이자 본질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드를 직관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됐다는 송 이사장은 최근의 새마을금고의 패러다임을 ‘점포 이전’이라고 단정했다. 고객을 기다릴게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준공에 맞춰 지난 7월 22일 금고 점포를 문현금융단지 바로 앞으로 옮겼다. “이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도 뒷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와야 합니다.”

점포를 대로변으로 옮기자 당장 고객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넓어졌다고 한다. 특히 355코너의 경우 4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고객이 예전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늘었다. 수의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제가 한 거라곤 주민들 만나 막걸리 걸친 것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목표 결코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다. 금고 이사로 14년, 다시 감사로 14년을 보내는 등 오랜 세월 문현3동 금고 경영에 관여했다. 사실상 28년간 경영 수업을 한 셈이다.

방 이사장은 금고의 성장 공로를 직원들에게 돌렸다. “이사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책임자와 직원들이 탄력을 맞추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으로 최근 4명의 계약직 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비용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소속감을 고려하면 분명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을 체험한 방 이사장은 지역 환원 사업 가운데 장학부문에 관심이 많아 매년 관내 중고등학교생들에게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장학금 지급 폭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자산순이익률(ROA) 기준으로 남수영구 21개 금고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 이사장은 “수신고 확충도 중요하지만 여유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 회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우선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문현4동 금고의 가장 큰 걱정은 인구 1만2000명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 부산은행, 농협,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이 몰려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이 몸집 대신 체력에 집중하는 이유다.

한때 문현곰장거리축제 위원장을 맡아 마을 활성화에 기여했던 이 이사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8년째 관내 쌀지소관에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고 있다. “머릿속 지식과 지혜는 평생 닦지 않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마을금고도 그런 마을가치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인처럼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화도났습니다. 부모님 원망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시대는 사는 게 다들 힘들게 살고 어려우니 하는수없이 15살 때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자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자식키운다고 글을 배운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이는 들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한글교실을 찾았어요. 우암동 양달마을 한글교실에 선생님을 만나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머리에 속삭이를 읊니다.

공부를 참 재미있게 알려 주십니다. 저는 언뜻이 공부 시작했지만 나이도 비소비수 한분들을 만나 아이기도 나누면서 재미있게 배웁니다. 저처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양달마을한글 교실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배울수 있도록 많은 시설과 환경을 지원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한 대교도 완공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또 밤야경 불빛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그 또한 남구를 빛내주고 있지요 구청장님 힘이 큼니다 우암동과 감만동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암동 양달마을 한글 교실이 인원에 비해 너무 좁고 불편합니다. 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조월선

“처음 오셨죠?”

옛날에 가정이 어려워 학교에 못갔어요. 8남매 맏이로서 동생들 돌보며 어머니 일도와 드리고 할 때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나는 그때는 젊어없어서 몰랐는데 결혼 할 나이가 되니 친구들과 비교하니 나자신이 바보스럽고 눈물도 흘린적도 있었다. 실면서 글을 몰라 힘든일도 많았고 나이가 들어가니 병원에 갈일도 많아지고 간호사가 “처음 오셨죠? 여기 이름과 주소 적으세요.” 이러면 딸적 겁부터 났고 “눈이 침침해서 못 적는다 대신 적어도” 그때부터 한글 교실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배워 병원이나 은행가로 내가 적어 내고 손자들과 편지도 하고 문자로 연락도 하고 정말로 좋아요.

진계순

직원 스스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이 되어 줄 뿐입니다.”

이사장 취임 직후 취임해 맨 먼저 이사장 집무실을 앞에서만 ‘무위의 경영’을 시작했다. 현재 문현동금고의 자산은 500억원대로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내실은 꼭 차있다. 예대비율이 78.2%, 적립금이 43억 원에 이른다. 특히 비이자 수익의 알토리아라 할 수 있는 생명공제 유효계약고는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한때 전국 1400개 금고 가운데 생명공제 부문 목표치 2위를 기록해 중앙회에서 벤치마킹하러 찾아온 정도였다.

오랜 금고 경영으로 금융 환경의 변화와 트랜

직원 스스로 성과 만드는 ‘무위의 리더십’

■문현동새마을금고 송순관 이사장

성성한 흰머리에 베타이 없는 하얀 와이셔츠, 고객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품새가 금고이사장이라기 보다 친절한 청원경찰 분위이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눈인사에서 깊은 유대감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최고의 도(道)는 무위(無爲)라 했는가. 문현동(옛 문현2동)새마을금고 송순관 이사장의 경영철학은 이른바 ‘무위의 리더십’이다. “취임 이래 직원들과 공식적인 회의나 지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목표 설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상인에서 금융수장으로 성공적 안착

■문현3동새마을금고 방이혁 이사장

문현3동새마을금고 방이혁 이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독특한 그의 이력이 금고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출신이다. 그것도 남구가 아닌 부산진시장에서만 38년간 장사를 했다. “시장 상인이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타고난 폭식과 성실함, 여기에 시장 바깥에서 몸과 세월로 익척스럽게 터득한 장사 수완은 얼마안가 금고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재임 2년 만

에 금고 자산은 560억원에서 730억원대로 늘었다. 35억원에 이르는 내부적립금이 지난해 4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올 상반기에만 3억5000만원의 흑자를 일궈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도 함께 다졌다. 대출 연체율이 0.09%에 불과해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잡아먹는 부실대출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 올 상반기 결산기준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지표인 국제자기자본(BIS)비율이 16.58%로 집계됐고 최우수 1등급 금고로도 선정됐다.

시장 상인에서 금융 수장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고와의 오랜 인연이 큰 몫을 했

작지만 단단해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

■문현4동새마을금고 김수성 이사장

문현4동새마을금고는 직원 4명이 전부인 몸집이 작은 경량급 금고다. 하지만 몸이 가벼워 금융시장의 속도전에서 선제적 대응과 혁신을 주도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점포의 골목 탈출’이 새마을금고의 화두가 되기 훨씬 이전인 2008년 문현로타리 인근 주상복합건물 1층으로 점포를 옮겨온 것도 그런 기민함이 있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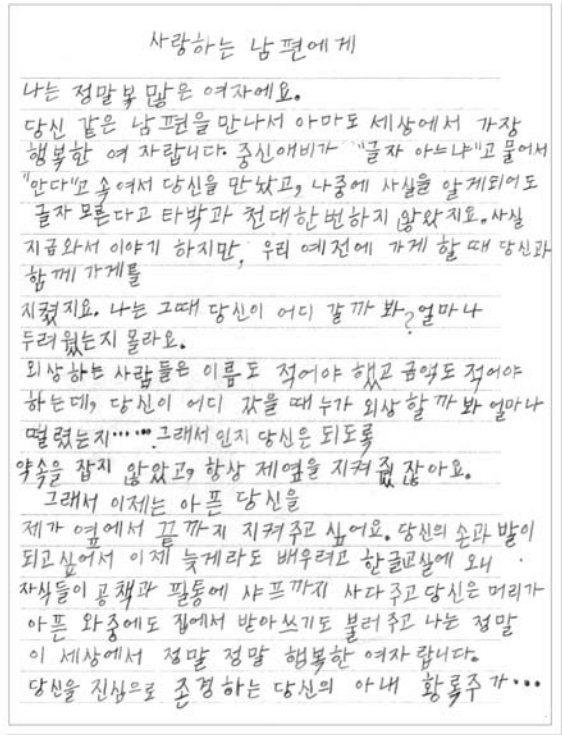
“당시 아무 탈 없는 저희 금고를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앙회가 통폐합 권고를 내렸습니

다. 불쾌했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즉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김수성 이사장은 “사람들이 물리는 신흥 주력가로 터를 옮기면서 금고 경영에 활기가 생기고 외형도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07년 취임 때의 자산 141억원은 최근 300여원을 넘겼다. 김 이사장은 더 금고에 비해 외형은 작지만 내실은 어느 금고보다 단단하고 알차다고 자부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05%로 우수하고 올 9월 기준 1억7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2010년에는 3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고

서 그냥 집에 혼자 있는다. 이럴때가 가장 외롭다.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 너무 힘들게 지내왔다. 언제 빛을 불러나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은 조금 외롭지만 복지관 다니고 한글교실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니 나에게는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내 이야기 잘하지 않는데 70년 속에 담아서 풀이 있는 것을 밖으로 내 보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러서 후련해진다. 가슴한 쪽이 뚫린다.

정운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저는 한글 교실에 다니는 조월선입니다.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의 가을운동회’ 체육대회 풍성



운동하기 좋은 계절, 남구 관내에서 각종 체육대회가 열려 생활체육인들을 즐겁게 했다.

남구청 주관으로 제3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18일 백운포체육공원과 남구국민체육센터에 열렸다. 이날 남구에 위치한 공공기관·군부대 등 11개 기관의 대표 선수들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4종목에서 선의의 경합을 벌였다. 우승 팀은 △축구 남부산우체국 △배드민턴 남구청 △테니스 해군작전사령부 △족구 국군수송사령부 함안운영단에 돌아갔다. 같은 날 부산공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제10회 남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남구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선수·임원·초청 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연동

석포체육관이 우승(품새 부문)을 차지했다.

지난 12일에는 제4회 고려병렬배 결 남구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가 관내 16개 클럽 회원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부경클럽이 종합 우승했다.

한편 지난 9월 14일에는 제5회 남구배드민턴연합회 청년부대회가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축구 남부산우체국 △배드민턴 남구청 △테니스 해군작전사령부 △족구 국군수송사령부 함안운영단에 돌아갔다. 같은 날 부산공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제10회 남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남구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선수·임원·초청 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연동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추억은 방울방울’ 성료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으로 마련된 ‘추억은 방울방울’(붓글씨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남구 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부산문화재단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포장지나 광고지 등에 많이 쓰이는 붓글씨(캘리그래피)를 배워 부채와 양초, 한지 전통자에 그려 작품을 만들었다. 남구청에 배치돼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 강민지 문화복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글씨연습을 넘어 어르신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 활



동을 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작품은 지난 10월 1, 2일 이틀간 남구청 1층에 전시됐다. ☎607-4064

11월 남구 문화캘린더

날짜(요일)	내용	시간	장소 및 문의
9/16(화)~12/19(금)	생활체육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고마 내가환>	홈페이지 참고	감만청의문화촌 745-7249
9/16(화)~11/16(일)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라모리예>국제교류전	09:00~19:00 1/1. 매주 월요일휴관	부산시립박물관 610-7111
11/27(목)~11/29(토)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제41회 예술전"	11/27 개막식 10:00~10:00~18:00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실신통정일빈 교장선생님 620-2700
10/25(토)	부산여성문화인협회 '시사랑 부산사랑'	10:00~18:00	부산예술회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10/26(일)	부산통기타 '리스트 제25회 정기공연'	16:00~18:00	부산예술회관1층 공연장 솔라피데주간보선터 628-8048
10/29(수)	문화가있는날 '유은주 작품'	19:30~	부산문화회관2층강사)아지무스 오페라단 070)7522-4649
11/7(금)	[음악회] "작은이들의 꿈여하기"	19:00	부산문화회관2층강사)아지무스 오페라단 070)7522-4649
11/18(화)	"MBC목요일음악회"	19:30	부산문화회관2층강사)아지무스 오페라단 070)7522-4649
11/5(수)	남구 오락도여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부산문화회관2층강사)아지무스 오페라단 070)7522-4649
10/17(금)~11월 중순	"감만관감(萬感)"-감만동 옛 사진전	홈페이지 참고	감만청의문화촌 745-7249
11/1(토)11/2(일)	2014 꿈다락 토요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축제 "여기가 꿈지(地)!"	홈페이지 참고	감만청의문화촌 745-7249
10/25, 11/1(토)11/2(일)	윤형빈소	15:00, 17:00 19:00	윤형빈소극장 610-1003
10/29(수)	문화가 있는날	홈페이지참고	부산시립박물관 610-7146

할로윈데이 ‘귀신’ 구경 오세요

10월 31일~11월 2일 아시아공동체학교 세계귀신오정축제

할로윈 축제를 맞아 전 세계의 귀신과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신요정축제가 남구에서 열린다.

문현동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오는 10월 31일~11월 2일 제2회 세계귀신요정축제를 학교 운동장과 청소년대사관에 개최한다. 축제 기간 귀신과요정, 귀신의 집·귀신 먹거리 체험, 무대공연, 귀신분장 콘테스트 등을 열고 학교

1, 2층 청소년대사관을 귀신요정체험관으로 꾸며 미국, 일본, 러시아, 페루 등 9개 나라 귀신과 요정들을 전시한다.

이번 축제는 인터넷(www.acdoodle.com)에서 입장권을 다룬 받은 뒤 반드시 귀신이나 요정분장을 하고 입장해야 한다. 행사는 오후 3~9시. ☎633-1381

남구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이순신의 삶과 행적을 찾아’

남구도서관은 제4회 길 위의 인문학 행사로 충무공 이순신이 삶과 행적을 찾아간다. 오는 11월16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인물특강으로 유성룡과 이순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bsnamg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607-6561

‘이순신 발자취 따라 떠나는 충무의 가을길~’ 역사탐방 행사도 가진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가격 40명(초등4~6학년 및 보호자) 대상이다.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bsnamg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607-6561



엄마 말씀 잘 들을 걸...

나는 거장에서살고 있었어요. 8남매에 형제가 많았고, 우리 큰 언니는 옛날 영주동서 기를 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 곳에서 이복사람들이 기름과 꿀을 많이 팔았어요. 10살인 나를 큰 언니에게 보냈고, 언니는 낮에는 장사를 돕게 했고, 밤에는 초등학교 야 학에 보냈는데, 나는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에 밤에 다니기가 무서웠고 공부하기도 싫었고, 엄마도 보고 싶어서 다시 거장에 내려갔다가 엄마한테 혼이 나서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언니랑 엄마가 똑같다면서 엄마 보고 싶으면 언니를 보라고 했지만, 10살밖에 안 되는 나로서는 '엄마'인데 싫어서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6.25가 일어나서 공부도 못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와 언니는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배울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나는 이제야 그 때 공부 못한 것이 회개가 되네요. 엄마말씀 잘 들었으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해 보네요.

윤일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는 3살때부터 계모 밑에서 지냈는데 새 엄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새책을 받아왔는데 할머니께서 가시나가 공부할 필요없다고 책을 아궁이불속으로 집어 던져 버렸고 학교를 못 가게 하였다. 내 책이 불에 '활활' 타 오르고 있는것이었는데 보았다. 또 나를 6 남매가 있는 고모집에 보냈고 식구 많은 고모집에서 보리쌀 쪄어 밥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한겨울에는 미끄러운 산에 가서 양동이에 물도 길러와줬었다. 그러다 양동이를 깨는 날에는 배를 맞곤 했다. 힘들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간장 하나에 보리쌀 한 숟가락 이었다. 생각해보면 친정식구 데리고 있는 고모도 고모부의 눈치를 봤을 것 같다. 그러다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신랑은 평소에는 잘 했는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고 나를 힘들게 하였다. 이제는 명절에 이웃 친구들이 혼자 있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식구를 모두 모여 있는데, 가기가 그래